<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

“ Mitsui는 절대 안된다! ”

대산 석유화학단지 통합으로 일컬어지는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석유화학 Big Deal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일본 Mitsui 컨소시엄의 자본참여도 9월말 시한을 넘김으로써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상 9월말까지 통합법인을 출범시키기로 되어 있으나 외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통합추진본부와 삼성, 현대는 「단일법인 설립일정 연기요청서」를 주 채권은행인 한빛은행, 외환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한다. 외자유치와 주주간 계약체결을 9월말에서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Mitsui 컨소시엄의 자본출자가 성사되기에는 여러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고, Mitsui의 제안내용 자체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itsui상사 본사 차원이 아닌 서울지사장의 개인적 의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히, Mitsui를 비롯한 일본기업의 대산단지 지분 참여는 Mitsui의 무리한 요구를 논외로 하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석유화학산업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달러가 부족해 급한 상황도 아니고, 일본 석유화학산업이 경영, 마케팅, 국제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해 일부 화학기술을 제외하고는 본받을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 석유화학산업은 1980년대 초반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산업구조조정법」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합성수지 카르텔을 시행했고, 당시에는 가격경쟁력 약화를 커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나눠먹기식 분배체제가 석유화학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오늘날에는 석유화학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범용제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됐다. 대단한 판단착오를 저지른 것이다.

더군다나 대산단지 출자를 시도하고 있는 Mitsui는 석유화학이나 화학기업이 아닌 종합상사로 석유화학제품 및 원료의 무역에는 일가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석유화학단지 운영이나 경영능력, 마케팅, 국제협력, 중국관계 등에서는 제로상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Mitsui가 대산단지에 투자하는 것이 대산단지 뿐만 아니라 한국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단지 나프타 수입 및 합성수지 수출권을 거머쥐고 행패를 부릴 여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오히려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산단지 경영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Mitsui 컨소시엄의 대산단지 출자추진은 없었던 일로 결론 지어야 하고, 북미 또는 유럽기업의 지분 및 경영 참여를 시도하거나, 삼성과 현대가 독자적으로 회생하거나 퇴출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빅딜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대산단지 통합은 1998년 당시의 외환부족을 해소하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만큼 일본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경쟁력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석유화학 경영능력 및 마케팅력, 장기비젼, 국제협력 면에서 앞서 있는 유럽 또는 북미의 다국적 화학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후진적 경영구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한-일 경제협력의 결실을 바라는 정치권 및 정부의 태도가 문제로 남아 있고, 빅딜을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인사들의 과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모토로 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순리에 어긋난 행태가 야기되고 있음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는 다르게 산업자원부가 Mitsui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은 심히 불쾌할 지경이다. 산자부 정덕구 장관이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에게 석유화학 빅딜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관료들의 무소신과 눈치보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받아야 할 것이다.

석유화학 빅딜을 원점에서 재검토, Mitsui의 참여를 배제하고 미국 및 유럽기업의 출자를 서두르거나 삼성과 현대가 독자적으로 회생하도록 하는 방향성 재정립을 요구한다.

<화학저널 1999/10/11>